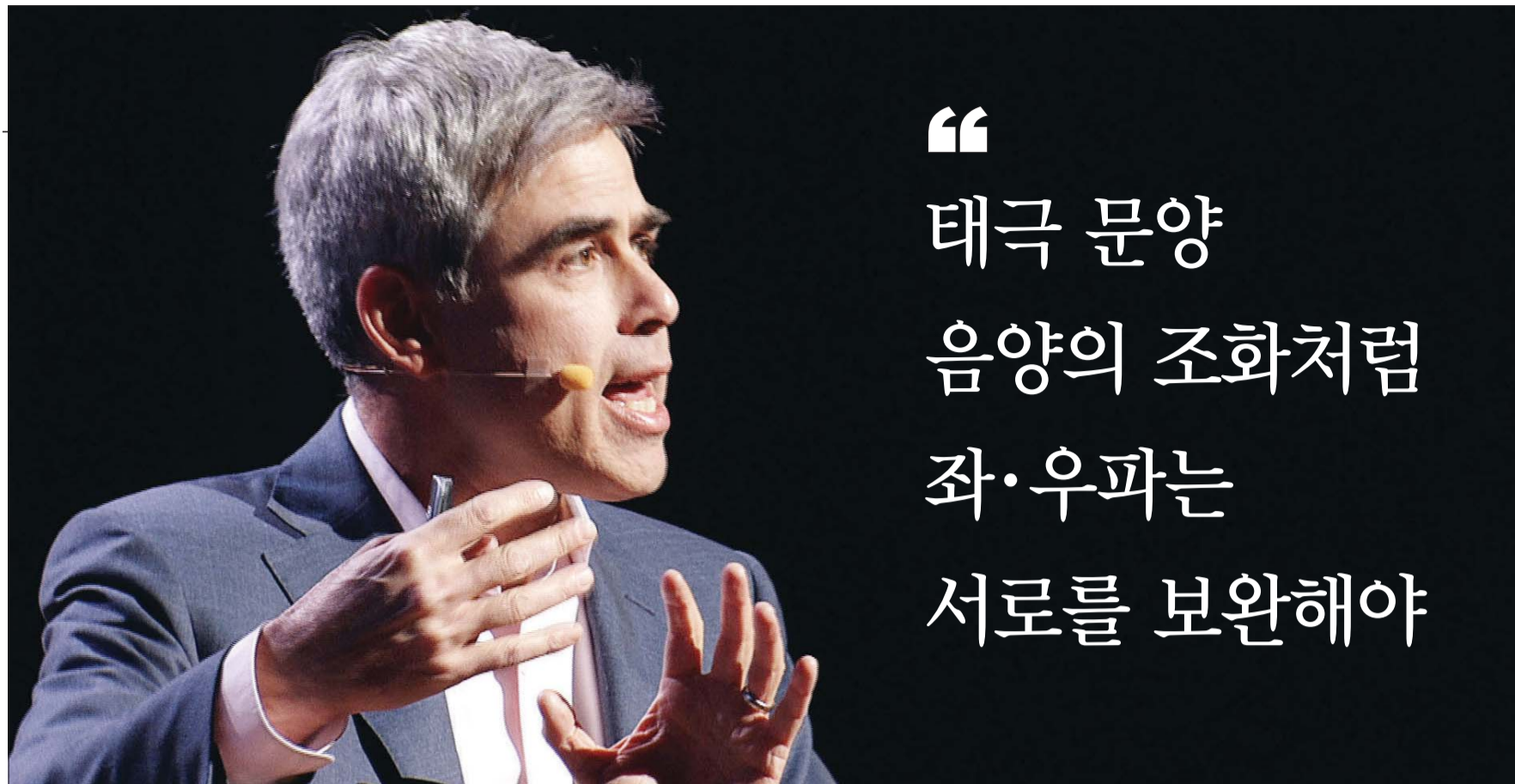


‘바른 마음’ 저자 하이트 한국 찾아 ‘인문학특강’

진보와 보수는 왜 그리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한국에서 출간돼 화제를 모은 <바른 마음>(웅진지식하우스)의 저자인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52)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 뉴욕대 스티븐경영대학원 교수인 하이트는 <바른 마음>에서 도덕 감정의 원천,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이 다른 이유 등을 분석했다. 하이트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녹화된 EBS <인문학특강>에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하이트는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상황을 수십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링 위에 올라 싸우고 있는 프로레슬링에 비유했다. 실제 2013년 10월에는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 첫다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치관 대립은 1980년대 이후 차츰 심해지더니 2000년대 들어 중간지대가 없어 양극화되다시피 했다. 하이트는 한국에서도 무상급식,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대응 등을 놓고 이념적 대립이 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념적 양극화가 사회 전반의 신뢰 지수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 있다. ‘2015 에벨만 신뢰 바로미터’를 보면 한국의 정부·기업·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3%, 36%, 50%에 불과했다. 하이트는 이 같은 상황이 “민주주의에서는 재난에 가까운 일이며 국가적으로도 위기”라고 말했다. 하이트는 도덕적 직관은 대통령, 이성



미국 뉴욕대 스티븐경영대학원의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2월27일 서울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열린 EBS <인문학특강>에서 강의하고 있다.

EBS 제공

- 무상급식·세월호 등 싸고
- 한국의 이념 대립 심각한 건
- 민주주의선 재난에 가까운 일
- 중도적인 인물 선출되도록
- 정치 시스템 개편하고
- 개인도 ‘내가 늘 옳다’는
- 확신 안 갖도록 노력해야

적 추론은 공보관으로 비유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공보관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에게 알린다.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 추론으로 사태를 파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강력한 직관에 따른 결정이 우선이다. 남성, 여성 피험자를 모아 ‘커피와 유방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오지의 논문을 읽게 했을 때, 이 논문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그룹은 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이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하이트는 도덕성의 기반을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배려/피해, 공정/부정, 자유/압제, 충성심/배신, 권위/전복, 고귀함/추함이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배려, 공정, 자유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이고, 보수적

인 사람들은 공정, 자유, 충성, 권위, 고귀함의 가치를 평가한다. 두 진영은 공정,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지만 그 목표는 다르다. 진보는 공정을 평등(예를 들어 부의 균등한 분배)과, 자유를 압제에 대한 저항과 연결한다. 반면 보수는 공정을 비례성(예를 들어 노력에 따른 대가 취득)과, 자유를 강한 정부로부터의 자유와 연결한다.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두 진영은 서로를 ‘악마화’한다. 해법은 없을까. 하이트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도적인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는 의견이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방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개인은 “내가 늘 옳다”는 확신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덕목이다. 하이트는 태극 문양에 담긴 음양의 조화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좌파와 우파는 남과여, 밤과낮 같다”며 “적이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과도 관련 있다. 좌파는 이주노동자, 인권, 환경, 동물, 자본주의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우파는 부와 창조를 중시한다. 하이트는 “좌우가 공존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오는 9, 10일 방송된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스keptik’ 한국판 창간



교양과학 계간지인 ‘스keptik (Skeptic)’ 한국판 창간호가 최근 나왔다. ‘스keptik’은 1992년 미국에서 창간돼 5만여명의 독자를 가진 잡지다.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심리학, 인류학, 통계학 등 각 분야의 논쟁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의 미신적 현상들을 검증하는 글들을 수록한다. 리처드 도킨스, 제러드 다이아몬드, 크리스토프 코흐 등 유명 지식인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판 창간호의 커버 스토리는 ‘시간 여행은 가능한가’다.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영화 <인터스텔라>를 자문한 김 손까지 물리학자들이 가진 시간 여행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다. ‘다중 우주’에 대한 특집도 만날 수 있다. 다중우주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예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다중우주론을 통해 인간 실존과 신의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밖에도 긍정심리학의 효과, 혈액형 성격론의 비교학적, 소리를 이용한 병 치료의 타당성 등에 대한 글들이 게재됐다. 어린이 특별섹션인 주니어 스keptik에서는 19~20세기 미국 및 유럽에서 인기를 끈 심령사진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본다. ‘스keptik’ 한국판을 내는 바다출판사 김인호 대표는 “‘스keptik’을 한국적 유산과학, 비합리주의를 검증하는 장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스keptik’ 한국판 편집진은 국내 필자도 발굴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곱 색깔의 시선

남산예술센터 을 시즌 공연

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 산하의 남산예술센터가 2015년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40대 연출가 7명의 작품을 올해 공연작으로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7개의 시선’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첫 작품 <소빨자르고주인오기전에 도망가선생>(최치언 작·김승철 연출, 12~29일, 사진)은 유치하고 과장된 언어와 형식으로 동시대 사회를 풍자한다. 작가와 연출가는 “언어 뒤편에 가려진 진실을 찾기 위한 작극적 언어놀이, 연극의 놀이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 실제 없는 허상을 좇는 시대

적 자화상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텔루즈: 물의 기억>(제레미 나이벡 연출, 4월16~25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공연이다. 한국과 호주 예술가들의 협업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호주 시인 주디스 라이트의 ‘홍수’(1953년)를 모티브로 무용, 음악, 몸짓표현 등을 결합한 비언어극이다. 세 번째 공연인 <푸르른 날>(정경진 작·고선웅 연출, 4월29일~5월31일)은 2011년 초연 이후 남산예술센터의 레퍼토리로 정착한 연극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삼았지만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모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조명하겠다”고 남산예술센터는 밝혔다. 특히 올해 공연에는 2011년 초연 멤버들이 무대에 선다.

<햇빛사위>(7월9~26일)는 이야기꾼장우재가 쓰고 연출하는 연극이다. <여기가 집이다> <환도열차> 등으로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온 장우재의 신작이다. 그는 “근거없는 희망과 감동으로 포장된 이야기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직설화법, 한정된 공간에 몰려 있던 쥐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이를 죽이는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다섯 번째 공연 <변신>(10월7~18일)은 전위적 실험으로 주목받은 연출가 김현탁의 연극이다. 프랑츠 카프카의 원작을 특유의 신랄한 감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의 파편화된 삶이 원작의 괴기스러운 변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의 연극이다. <태풍기담>(성기웅 작·다다준노스케 연

출, 10월24일~11월8일)은 한·일 공동제작이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저본으로 100년 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돌아보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파격적인 연극적 상상력으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선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공연인 <치정>(박상현 작·윤환술 연출, 11월19일~12월6일)은 새로운 실험과 도발적 풍자의 세계를 선보여온 극단 ‘그린피그’의 신작이다. ‘치정’은 ‘정치’의 전도된 음절, 일종의 말장난이라는 것이 연출가 윤환술의 설명이다. 이른바 ‘잘못된 만남’의 이면에 숨어있는 권력관계, 현대인들의 결핍과 과잉, 폭력과 단절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2015.3.3. 3.10 NO.994

이주의 시네마 무엇을 이야기했나

꽃샘추위,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받나요?

01 강하늘을 다시 만났다 영화 <배시몽> (순수의 시대), 연극 <해물드 앤드 모드> 바쁘게 돌아가는 이 남자의 시간을 들여다보다.

02 “죽이 되든 반이 되든 미국에 있어볼까” (올드보이) (스토커) (신세계) 촬영감독 정정호의 할리우드 도전기.

03 놓치면 후회하십니까...? (버드맨)과 (인허버먼트 바이스)의 <씨네21>식 가이드.

04 대체 불가능한 남자 관객의 주요 관심사에 빠지지 않고 출연 배우 이경영을 만나다.

05 도라에몽이 좋아? 스폰지밥이 좋아? 어린이의 심정과 어른의 시선으로 <도라에몽: 스텐바이미> (스포지밥 3D)를 보다.

06 육쟁이 할머니의 甲 (할머니)에서 육의 대가이자 희생적인 어머니를 연기한 김수미.

07 OSCARS of 2015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제37회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 중계.

08 “아름다움은 뒷전에 돼버렸다” 3집 <용서> 낸 김창완 밴드의 김창완 혹은 연기 인생 30년의 김창완 인터뷰.

09 SF작가 듀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에세이집 <가능한 꿈의 공간들> 출간을 맞아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 10살 꼬마가 들어올린 금공상 신주로 가득한 축제 베를린국제영화제 결산 보고서.

<씨네21>을 보시면 볼향기를 느낄 수 있을지도...